

코로나 장기화에 'TV예능 셀러' 인기

'복유림' '유 퀴즈...' 등서 책 소개 '연금술사' '나를 부르는 숲' 등 판매량 크게 늘어 분야 1위 차지도

코로나 장기화로 집콕생활이 늘면서 TV를 시청하는 시간도 함께 늘고 있다. 청소년뿐 아니라 청장년층 등이 함께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것과 맞물려 소개된 책들이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집계한 종합 베스트셀러 1월 2주간 베스트셀러 집계 따르면 예능 프로에 노출된 책들의 판매량이 대폭 늘었다.

'나를 부르는 숲', '연금술사',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보건교사 안은영', '0시를 향하여', '조선잡사' 등이 예능을 통해 소개된 책들이다.

먼저, 셸럽(유명인사)의 서재를 찾아가 인생책을 기부받아 도서관을 채우는 데 나누는 KBS '비움과 채움-복유림' 프로그램이 통로가 되고 있다. 송은희, 김숙, 유세운 등이 기부자를 맞이하는데 최근 '장르물의 대가'로 알려진 김은희 작가가 출연했다. 김 작가는 '나를 부르는 숲'을 추천했다. 책은 방송 전과 비교해 101배 상승해 여행 분야 1위를 4주째 지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여행작가'로 꼽히는 작가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위험한 애플레치아 트레일에 도전한 분투기다. 브라이슨은 미국 조지아 주에서 메인 주까지 이르는 총 길이 35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친구와 함께 배낭을 메고 떠난다. 브라이슨이 직접 걸으며 담아낸 풍자기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며 30년 차 가수인 김미경 작가는 소설 '연금술사'를 소개했다. 책은 1987년 출간 이후 전세계 120여 개국에서 번역돼 2000만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했던 브라질 출신 파울로 코엘료가 저자다.

작품은 신부가 되기 위해 라틴어, 스페인어, 신학을 공부한 산티아고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양치기가 돼 길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저자는 내면



'비움과 채움-복유림'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 다른 예능 프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서도 책이 소개됐다. 개그맨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이 프로는, 화제가 되는 인물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퀴즈를 푸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얼마 전 시인이자 작사가인 원태연이 출연했는데, 그의 대표작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가 시 분야 1위에 올랐다. 방송 전과 비교해 98배나 상승하는 인기를 얻은 것. 원태연은 백지영 등 당대 최고 발라드 가수들의 노랫말을 쓴 작사가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02년 시집 '안녕'을 끝으로 '시를 쓰는 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시 쓰기를 멈췄다. 이번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18년 만에 쓴 신작 시와 그의 대표 시를 묶은 필사

집이다. 또한 '년 가깝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깝가다 딴 생각을 해'도 시 분야 5위에 올랐다.

한글을 처음 배운 '할매들'인 주미자, 이유자 저자가 손글씨로 쓴 요리책 '요리는 감이여'도 요리 분야 1위에 올랐다. 할매들은 "요리는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하는 것"이라고 자상하게 일러준다. '할머니 요리사 사진'에는 할머니들이 쓴 단어 가운데, 생소한 것들을 모아 정리돼 있다.

아울러 지난 13일에 출연한 정세랑 작가의 '보건교사 안은영', '시선으로부터', '등도 방송 후 판매가 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편 '이만큼 가까이'로 제7회 창비장편소설상을 수상한 정 작가는 그동안 장편 '지구에서 한아뿐'과 같은 작품을 펴냈다. 지난 2015년 출간된 '보건교사 안은영'이 작가에게 좋은 친구가 돼 주었다는 고백은 잔잔한 여운을 준다.

또한 정 작가가 겨울방학에 읽으면 좋을 책으로 추천한 에가서 크리스티의 소설 '0시를 향하여'도 35배나 되는 판매량을 보였다. '추리소설의 여왕'답게 에가서 크리스티는 악마가 꾸민 살인 계획을 곳곳에 배치해 시종 독자에게 긴장과 스릴을 준다. 강문종 교수의 '조선잡사'도 이전과 비교해 14.5배나 늘었다. 제주대 국문과 교수인 저자는 한국학 연구자들이 발굴한 67가지 직업을 소개한다. '극한 직업', '예술의 세계', '조선의 전문직' 등을 다뤘다. 저자는 어렵고 험난한 일을 하며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먹고 사는 일에는 애환과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위로를 건넨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 참가자 모집

유·스퀘어문화관, 2월 15~1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은 2월 15일부터 5일간 '제12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음악 영재를 육성하고 무대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월 말,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을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예정대로 오디션을 치르지 못하고 수차례 연기해 치른 바 있다.

문화관은 올해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지속을 고려해 작년과 같이 연기하는 일 없도록 오디션을 비대면 영상 오디션으로 개최한다.

오디션은 만 26세 이하의 피아노·현악·기악·성악 부분의 음악 전공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연주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USB 우편 제출 또는 영상 링크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디션에 합격한 학생들은 오는 7~8월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금호주니어콘서트 시리즈 무대에 선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참가비 11만원. 문의 062-360-843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제12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이 2월15일부터 5일간 비대면 영상 오디션으로 진행된다.

'동아시아연구소 총서' 5권 '중국문학과 화문문학' 출간

중국의 디아스포라 문학에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엮은 '동아시아연구소 총서' 5권 '중국문학과 화문문학'이 출간됐다.

전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소장 엄영욱)가 발간한 이번 책은 화문문학(華文文學)에 초점을 맞췄다.

화문문학은 화인(華人)이 중국어(華文)로 창작한 문학을 일컫는데 '화인'이란 중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한족, 혹은 한족에 동화된 중국 출신 일부 소수 종족 또는 정치적 망명을 한 중국인을 말한다.



20세기 격동시대에 분국을 떠나 외국을 떠도는 화인들이 자신들의 언어 즉 중국어로 문학작품들을 창작했으며, 이 작품들이 서서히 본토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소는 그동안 동아시아 문화와 문화에 관계된 연구서 및 번역서발간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완서 타계 10주기 맞아 작품 재단장 출간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휘청거리는 오후', '그 남자의 집' 등과 같은 작품으로 수문학과 대중문학을 아울렀던 박완서(1931~2011) 작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이 됐다.

박완서 작가는 가족의 변화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그렸던 탁월한 작가였다. '한국 문학의 축복'이라는 찬사가 따를 만큼, 그는 작품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품이 넓었다.

박완서 타계 10주기를 맞아 그가 남긴 작품을 재단장해 출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웅진지식하우스는 자전적 장편 개성판 두 편을 발간했다. 어려해살이 풀로 알려진 '싱아'를

많은 독자들에게 알렸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후속편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가 그것이다.

민음사 산하 브랜드 세미콜론은 박완서의 딸 호원숙 작가가 쓴 산문집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을 펴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 등을 모티브로 삶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수필들이다.

문학동네는 박완서 문학 인생을 수놓은 수필을 엮은 10주기 기념 산문집으로 발간한다. '꽃피에게 보내는 갈채'(1977)에 수록된 에세이들까지 모두 465편을 골라 9권 전집으로 엮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연간 10만원 177만명에 지원

수급자격 유지 팬 자동 재충전

올해 저소득층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10만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발급과 사용도 편리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유지되면 신청 절차 없이 충전되는 '자동 재충전' 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가운데 자동 재충전 대상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오는 28~29일 이틀간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 발급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 가맹점도 확대한다. 도서, 웹툰, 음악, 영상, 비대면 공연, 미술, 온라인 문화체험 등의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며 문화생활 꾸러미 등도 지원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위치와 실시간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